

7번국도 간성~거진 구간 연내 완공 희망

짙금 예산탓 간성~현내 내년 준공 못믿어 ... “교통량 많은 간성~거진만이라도...”

지난 2003년 발주한 간성~현내 구간 국도7호선 4차선 확장사업이 정부의 짙금 예산 배정으로 지난해 12월 준공 계획이 무산된 가운데, 주민들은 간성~거진 구간만이라도 연내에 마무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시행처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해 준공하기로 한 공사를 2년 연장해 2012년까지는 완공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를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우후죽순 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보다는 교통량이 가장 많은 간성~거진 구간만이라도 먼저 추진해 올해 내에 반드시 마무리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윤종우 거진읍변영회장은 “전체 구간 마무리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 아니냐”며 “우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간성~거진 구간만이라도 올해 내에 끝내달라는 게 주민들의 목소리”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우라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사구간을 조정하고 있다”며 “시공업체인 흥화와 협의해 거진까지만이라도 올해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내~송현진 구간 시공을 하고 있는 동양건설 산업은 법정관리에 들어갔지만, 공사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광호 기자



국도7호선 간성~현내 구간 4차선 확장공사가 추진중인 가운데, 지역주민들은 간성~거진구간만이라도 연내에 마무리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고성군, 23일까지 환경감시단 등 합동단속반 편성

고성군이 장마철 집중호우기간을 전후해 오·폐수 무단방류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해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군은 이달 23일까지 3개반 15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폭우로 인한 하천수위 상승 등을 틈탄 오·폐수 무단방류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반복위반업소, 폐수처리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등 오염물질을 보관하거나 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취약시기에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성군의 분야별 단속대상은 폐수시설 24개소, 폐기물 22개소, 오수시설 12개소, 축산시설 10개소 등 84개소이다.

군은 환경감시단 등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하고 특히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범죄는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대처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주민들은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광호 기자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재 철거사업 추진

고성군은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비용부담의 증가로 인한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되는 위험을 막기 위해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재 철거사업을 추진한다.

고성군은 군비 1억5천만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지붕 26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2012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1월부터 3월 11일까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은 결과 총 38명 42동이 접수돼, 현지 확인과 건축물 우선순위 및 부대별 우선 순위를 통해 총 26명 26동(주택 22, 창고 4)을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1차로 5일부터 60일간에 걸쳐 간성 4, 거진 4, 죽왕 4, 토성 4 총 16동에 대해 진행된다. 최광호 기자

강원도 지정 으뜸 음식점

염광활어횃집

여름 시즌 大바겐세일

Summer Festival (7월 1일 ~ 8월 31일)



- | | | | |
|-----|---------|-----|---------|
| 세꼬시 | 30,000원 | 산낙지 | 15,000원 |
| 우럭 | 15,000원 | 광어 | 15,000원 |
| 성게 | 10,000원 | 개불 | 10,000원 |
| 물회 | 10,000원 | 명게 | 10,000원 |
| 소라 | 10,000원 | 오징어 | 10,000원 |

200명 300석을 갖춘 저희 거진항 '염광활어횃집'은 모든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성실하게 모시겠습니다

※ 영업시간 : 오전 9시~밤 12시 / 7.23~8.23 : 24시간 영업

염광활어횃집

대표 조선영
실장 김정환

☎ 682-3131, 682-0051